

배포 일시	2022. 11. 18.(금)		
담당 부서	도로국	책임자	과 장 김철기 (044-201-4522)
	도로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누리 (044-201-3915)
보도일시	2022년 11월 18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18.(금) 11:00 이후 보도 가능		

전국 도로정보를 한 눈에, 도로대장의 디지털 대전환 -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의 권역별 지자체 도로관리 담당자(약 250명)를 대상으로 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은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를 하여 전국 도로의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대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 km으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법 및 수준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여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 고속국도 : 도로공사 /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 / 지방도 등 - 소관 지자체장
 -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국의 도로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디지털 도로대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의 추진배경 및 내용, 현재 지자체 도로대장 관리 현황, 디지털 전환방안 등을 설명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일반국도에 대해 운영 중인 도로대장 관리시스템(위탁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연으로 도로대장의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 설명회에 참가한 지자체 담당자들은 “소관 도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속성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고품질의 도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취지에 공감하였으며,
 - “표준규격으로 디지털화한 도로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지자체로 확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 * 일반국도에 대해 포장·비탈면·점용 등 총 12개 도로관리시스템을 운영 중
-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세부적인 추진 방안, 법·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여 ‘27년까지 고속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의 단계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전국단위의 디지털 도로대장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도로대장 디지털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 중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의 구축으로 도로 서비스의 향상과 최신 도로정보의 개방이 민간의 신사업 창출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 한다면서, “이번 국정과제를 통한 도로정보의 디지털 대전환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철기 (044-201-4522)
		담당자	사무관	이누리 (044-201-3915)
<유관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SOC 센터	책임자	실 장	박춘수 (063-713-1200)
		담당자	센터장	이정훈 (031-5178-3290)

